

#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

##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of Busan Sanbokdoro Archives

김 화 경(Hwa-Kyoung Kim)\*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수집방안 |
| 2.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             | 5.1 전략수집 방안        |
| 3.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비전 및 목표      | 5.2 일반수집 방안        |
| 4.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 | 6. 맺음말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마을 아카이브 구축시 고려해야 하는 수집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부산 산복도로의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수립한 수집전략을 소개하였다. 먼저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을 정의하고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비전 및 목표를 정리하였다. 비전에 따라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 지역과 주민들의 삶을 아카이빙하기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과정과 수집방안을 소개하였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특정한 주제, 사건,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을 위해 수집연표를 통한 자료수집, 장소정보 수집, 개인이야기 수집의 전략수립 방안과 아카이브 개관 후 운영프로그램을 통한 수집활동인 일반수집으로 구분하여 수집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제어: 마을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지역 아카이빙,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집전략, 수집정책, 공동체

### <ABSTRACT>

In this study, the local archives suggested tha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reating your strategy to the corridors of the local archives to Busan Sanbokdoro to build a acquisition of strategies to establish. First, the role of the local archives and organize the vision and goals of the Sanbokdoro archives. The residents of the region from the Sanbokdoro archives depending on the vision of the life orientation commands queue for archiving documentation strategies and acquisition plans were introduced. Sanbokdoro archives for specific topics, events, places, and so on, gather for a specific acquisition strategy and operating program through acquisition activities after the opening of the archives is to establish measures to acquisition the General acquisition.

Keywords: local archives, community archives, archiving locality, documentation strategy, acquisition strategy, acquisition policy, community

\* 아카이브센터(주) 선임연구원(kimhk@archivecenter.co.kr)

■ 접수일: 2012년 7월 21일 ■ 최초심사일: 2012년 7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4일

## 1. 머리말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학계에 ‘기록학’이 신설되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었고, 기록관리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은 공공영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당연히 기록관리의 대상은 기관의 활동과 업무를 증거할 수 있는 공공기록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관리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맞물려 마을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을만들기란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실천하는 다양한 공동활동”을 일컫는 용어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 자원에 주목하고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주민자치운동의 성격을 많이 강조한다(국토연구원 2011, 16). 따라서 그 일환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활에 대한 아카이빙과 함께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아카이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서울시는 현재 마을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핵심의제 중 하나로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설정하고 있다. 마을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교육과 아카이브 연구분야로 구분하여 아카이

브 교육에서는 마을 일꾼에 대한 아키비스트 교육과 마을 아카이브 캠페인을 진행하고, 아카이브 연구에서는 마을에 적합한 맞춤형 아카이브 연구와 아카이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 기반 구축 후 수집대상으로 마을 일꾼의 성장과정, 커뮤니티 생성과 발전, 마을의 갈등과 해결, 마을의 재설정과 실행, 마을 기업 설립과 해산, 마을 행사, 마을사람들의 일상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한다. 관리·보존보다는 활용 중심 아카이브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 마을 포털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지향한다(이경래 2012, 56-67).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심정으로 마을 조사단을 만들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유무형의 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서로 연계하며, 이와 관련한 사람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을 조사단은 농촌마을의 숨은 자원을 찾아내어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땅을 지켜온 농촌 주민들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고 자신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단체이다. 대표적인 곳이 진안군 백운면으로 마을 조사단을 만들어 지역 자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백운면지 발간하였고, 가정마다 보관하고 있는 옛 흑백사진을 발굴하여 마을 운동회, 축제, 군청 앞 느티나무 광장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국토연구원 2011, 126-127, 184-194).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중요 문화자원을 아카이빙하여 이를 서비스한 과정은 마을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미산 마을 아카이브의 경우 우리나라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미산

마을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성미산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지내온 공동체 집단의 명칭이자 터전이다. 2002년 성미산지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미산 마을이라고 정식적으로 칭하게 되었다(최운진 2011, 13-14). 성미산 마을 아카이브의 경우 교육, 복지, 환경, 문화, 협력단체, 자치, 경제의 7개의 분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 활동 중 마을의 공동체 커뮤니티 기록을 관리하는 아카이브 구축 추진 활동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복도로<sup>1)</sup>의 재생사업을 위해 2010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간재생(생태/교통/경관), 생활재생(주거/경제/교육/복지), 문화재생(역사/문화/관광)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 대상지역은 원도심 산복도로 6개 자치구(중·서·동·부산진·사하·사상구) 약 10.5km로 사업구역은 3개 권역, 9개 구역<sup>2)</sup>으로 세분화하였다. 2011년 1차년도 사업으로 중구 영주·동구 초량지역을 대상으로 기반·공동체 이용시설, 마을만들기 등 30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사업과 주민 공동체사업을 균형있게 구성하기 위해 민관협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활동가·계획가를 모집하여 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주민·공공·전문가 협력을 지

원하고 사업실행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있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올해 말 초량~영주지역에 처음으로 개관될 마을 아카이브이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시 문화재생 실행사업의 문화기반 구축부문에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1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실행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에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공간 연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부산시, 미발표). 그 결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올 초부터 5개월간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아카이브의 기본구상 정립, 도큐멘테이션 전략 및 자료 수집 방안, 시스템 구축, 공간계획, 관리·운영 방안, 아카이브 구축 로드맵 등을 수립하였다. 또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따라 수립한 수집 방안에 따라 1차년도 사업구역인 초량~영주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자료 수집하였다.

그동안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이영남 2008; 김익한 2010) 및 지역 아카이빙에 대한 방법론(설문원 2010; 권순명, 이승휘 2009)과 같은 연구논문과 인천 타이타운(엄수진 외 2010), 종로 피맛길(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과 같이 지역을 아카이빙한 사례가 발표된 바

1) 부산의 산복도로(山腹道路)는 산(山)의 중턱(腹)을 지나는 도로로 망양로, 엄광로, 대티로를 일컫는다. 산복도로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노동자들의 거주지, 해방 후의 귀환동포의 정착, 6.25전쟁 피난민의 대규모 정착지, 경제개발기의 부산으로 몰려든 서민층의 무허가 정착지 등 부산 역사가 녹아있는 역사적 자원이다(부산발전연구원 2010, 7).

2)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구역  
 - 3개 권역: 엄광산, 구봉산, 구덕·천마산  
 - 9개 구역: 주례~개금, 가야, 범천~범일(이상 엄광산 권역), 좌천~수정, 초량~영주, 보수(구봉산 권역), 대신, 아미~감천, 충무(구덕·천마산 권역)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실제로 산복도로에서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수립한 수집전략과 수집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마을 아카이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비전 및 목표를 도출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해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수집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마을 활동가/계획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마을 아카이브는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지, 마을 아카이브에서는 무엇을 아카이빙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2.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

마을은 '사람이 모여 살아야 하는 필연성이 작동하는 최소한의 공간 단위'이며(국토연구원 2011, 12), '주로 도회지(都會地) 밖에 비교적 소수의 살림집들을 구성요소로 하여 한 때를 이루고 있는 지연(地緣) 단체로 리(里)나 구(區)로 나누어 있거나 특정한 지역에 지연 단체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정의한다.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마을보다는 행정구역상의 구분이 더 익숙해졌지만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살고 살림집을 이루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간 얼굴을 익히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이며 '이웃'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마을을 근간으로 하는 아카이브는 지역에 대한 아카이빙 역할과 함께 마을의 주민들,

이웃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함께 아카이빙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지닌다. 첫 번째 역할인 지역 아카이빙은 그 마을만이 지닌 역사와 문화, 그 마을에서만 전해오는 풍습, 그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보존하는 역할을 말한다. 권순명, 이승휘(2009)는 이러한 지역 아카이빙에 대해 '단순히 지역의 풍경 또는 경관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보존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지역의 형성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지역만이 지닌 지역성(locality)과 정체성(identity)을 아카이빙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역할인 마을주민들의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아카이빙은 생활사 아카이브의 특성을 강조한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곽건홍(2011)은 일상 아카이브란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시사적 관점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과 생활모습을 아카이빙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산복도로 아카이브 역시 두 가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먼저 산복도로의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과 이와 관련한 기록을 아카이빙한다. 산복도로는 부산의 가장 낙후된 지역, 서

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면서도 부산 근현대사의 함축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초기 산복도로의 마을은 판잣집을 지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골목과 계단이 많으며 당시의 모습이 지금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산복도로에서만 볼 수 있는 하늘 주차장(아랫집의 지붕이 윗집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산복도로 형성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처럼 산복도로의 형성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화, 산복도로만의 대표성을 지닌 장소, 경관 등에 대한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여 산복도로를 알려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는 산복도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아카이빙하고 이 과정을 통해 아카이브와 주민의 소통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소통체계의 기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을 아카이빙 목적의 중심에는 대내적 의미에서 공유와 소통이 설정되어야 하며, 아카이빙을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이 마을의 공동 활동을 공유하고 나아가 구성원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목적의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김익한 2010, 161). 특히 산복도로 주민들은 일제시대의 노동자, 한국전쟁의 피난민, 1970년대 경제개발기의 부산으로 몰려든 서민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본인의 삶을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산복도로에 정착하고 살아온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시절에 대해 위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산복도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세대가 살았던 삶을 이해

하고 앞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갈 산복도로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산복도로를 떠난 사람들에게도 산복도로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복도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부산 산복도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복원의 시작이며 마을 아카이브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을 아카이브는 해당 지역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아카이빙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의 매개체로서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3.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비전 및 목표

일반 아카이브가 기록의 관리 및 보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마을 아카이브는 기록의 관리·보존 기능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을 증거하는 아카이브로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열린 아카이브를 지향하고 있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복도로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소통공간으로서의 아카이브”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션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실현가능한 비전 이행을 위해 아카이브 운영과정을 설립단계와 안정화단

계로 구분하여 미션과 목표를 정하고, 각 단계별 아카이브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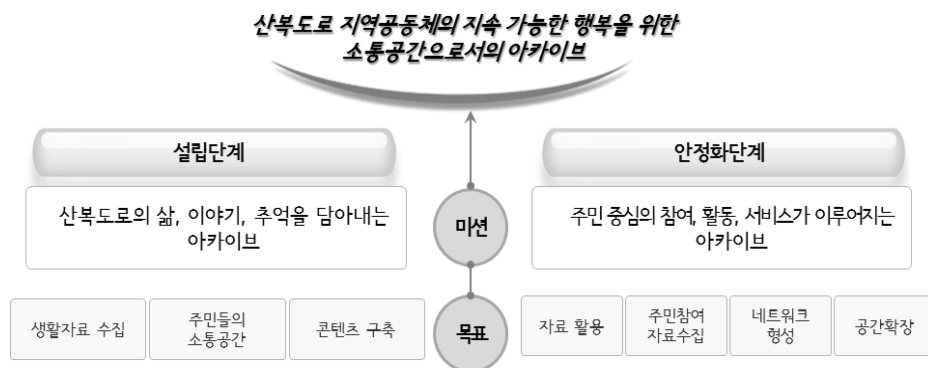
설립단계와 안정화단계의 구분은 아카이브 개관 후 공간이 확장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금 건축계획 중인 초량·영주 아카이브는 지상 2층의 건축규모에 건축면적은 184.73㎡로 아카이브의 기본 기능인 기록의 보존 및 관리는 규모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복도로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마을 아카이브로서 지역과 주민들의 삶을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를 구분하였다.

설립단계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미션은 현재 계획 중인 건축규모와 면적 내에서 최초의 마을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복도로의 삶, 이야기, 추억을 담아내는 아카이브'로 정의하고 생활자료 수집, 주민들의 소통공간, 콘텐츠 구축을 목표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설립단계의 아카이브 역할은 흩어져 있는 산복도로의 삶과 역사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주민들의 소통공간 마련, 또한 산복도로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아카이브로서 산복도로의 안내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것

으로 하였다.

안정화단계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미션은 공간확장을 통해 아카이브의 기본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아카이빙 자료의 축적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를 고려하여 '주민 중심의 참여, 활동,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아카이브'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는 축적한 수집자료의 활용, 주민참여를 통한 자료수집, 주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공간확장을 목표로 정리하였다. 안정화단계에서는 산복도로 아카이브가 주체적으로 주민들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획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보존공간의 부족으로 실물자료 수집보다는 수집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콘텐츠를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해 외부서비스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건축규모를 고려한 것이기는 하나 누구나 쉽게 아카이브의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1〉 산복도로 아카이브 비전 수립을 위한 단계별 미션 및 목표

#### 4.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설립단계의 미션을 고려하여 생활자료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은 특정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방법론이다(한국기록학회 2008, 85).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는 망라적 수집을 지양하고 산복도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화 항목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크게 맥락분석, 수집범위 설정, 기록화 항목 도출, 수집방안 수립의 절차를 통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맥락분석을 위해 산복도로와 관련된 대표 키워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진행하고 관련내용을 분석·연구하였다. 또한 지역 향토사학자, 지역 연구자와 토론회를 통해 산복도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산복도로는 1900년 전후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일제식민지 노동자, 한국전쟁 피난민, 경제개발기 서민층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으며 형성과정부터 지금까지 부산의 피난 역사와 서민층의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다. 따라서 산복도로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한 정립은 곧 부산 서민층의 역사와 함께 그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복도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지역, 시기, 대상에 대한 수집범위를 설정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산복도로 르

네상스 1차 사업구역인 초량·영주지역의 동구·중구를 주요 수집 대상 범위로 하였다. 시기는 산복도로에 공동체와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전 시기를 수집대상 시기로 하되, 지금 산복도로의 모습을 띠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1964년 망양로 개통 이후의 시기를 중점 대상 시기로 하였다. 대상은 산복도로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중심으로 하였다.

설정된 수집범위 중 집중적으로 수집해야 주제를 구분하여 기록화 항목을 도출하였다. 기록화 항목은 산복도로 지역의 모습 및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기록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헌조사,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구체화하였다.

〈표 1〉은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 수집대상으로 설정한 기록화 항목이다. 크게 문화, 장소, 생활, 인물, 역사로 구분하여 각 소주제에 따라 수집할 대상을 정리하였다. 산복도로 기록화 항목의 특징은 수집전략 뿐만 아니라 리드파일 유형 구분, 자료분류 등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 기록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마을 아카이브의 특성상 전문적인 아키비스트가 아닌 마을 활동가, 향토사학자 혹은 지역주민이 아카이브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고려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준을 수립하게 될 경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기록화 항목 도출 이후에는 실제 기록화 항목 주제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수집방안을 수립하였다. 수집방안은 크게 특정한 목적이

〈표 1〉 산복도로 아카이브 도큐멘테이션 전략 기록화 항목

대주제	소주제	대상
문화	영화/영상	영화 촬영장소 및 관련자료, 산복도로 관련 영상/방송자료 등
	축제·행사	상해거리 축제, 전시회, 영주1동 느티나무 당산제 등
	음악	산복도로 관련 음악
	문학	시집, 자서전, 수필 역사서 등
	미술	산복도로 관련 미술
	모임	소모임, 6사모(초량6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종교	사찰, 교회, 무속, 당산나무
	블로그	산복도로 관련 블로그
장소	집	집구조, 지붕, 화장실, 일제가옥, 이색주택, 공공주택, 시대별주거상황
	풍경	산복도로 사계, 뷰포인트, 꽃길, 조망점 등
	길	계단, 골목, 길, 터널
	이색공간	우물, 옥상 주차장, 사랑방, 공부방, 옛날의 주요장소
	기관	행정기관, 박물관, 은행, 학교, 조산소, 병원, 가게 등
생활	식생활	산복도로 주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자료
	교육	산복도로 주민들의 교육과 관련된 자료
	교통	순환버스, 333번, 최초 버스 노선 등
	가게	산복도로 내부 가게, 시장가게, 가게 외상장부
	시장	초량시장, 영주시장
인물	주민	이주주민, 거주주민, 가게주민, 최고령자
	유명인	산복도로 출신 유명인, 화제의 인물 등
	연구자	향토사학자, 문헌 연구가 등
	예술가	음악인, 시인, 사진작가, 미술가 등
	활동가/계획가	마을 활동가 및 계획가
	기타 관련인	블로거, 버스기사, 봉사도우미 등
역사	형성	산복도로의 형성 관련 자료
	변화	이주, 철거, 명칭변화-주소, 길, 골목, 행정 권역 변화 등
	사건	산복도로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 경제적 사건, 정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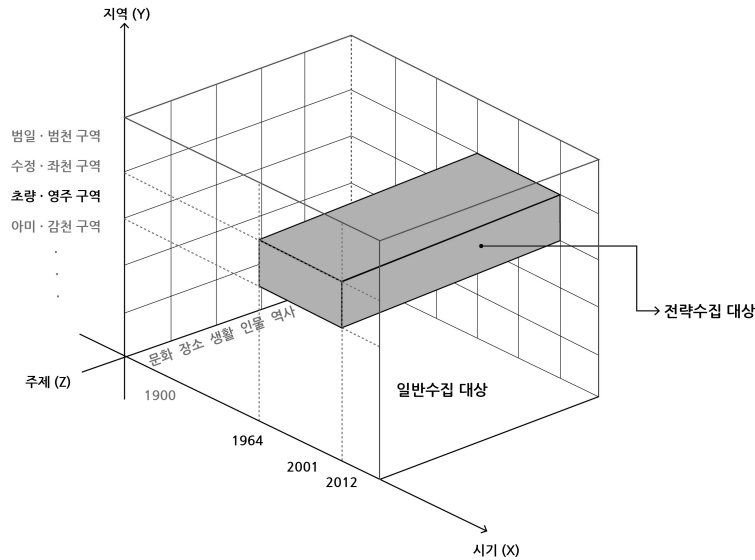
\* 출처: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나 주제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전략수집'과 산복도로 아카이브 건립 후 아카이브의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는 '일반수집'으로 구분하였다.

산복도로 아카이브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개념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개념도는 수집 시기, 지역, 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다.

개념도에 따라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도큐멘

테이션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X축)는 산복도로에 마을이 형성된 190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로 하되 산복도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1964년 망양로 개통 이후의 시기를 중점 대상시기로 하며, 지역(Y축)은 산복도로 아카이브가 설립될 초량·영주지역의 동구·중구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주제(Z축)는 '문화, 장소, 생활, 인물, 역사'라는 대주제와 관련된 산복도로 주민들의 삶과 생활모습 등을



\* 출처: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그림 2〉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념도

수집하기 위해 일반수집을 진행하되, 특정 주제는 전략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략수집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산복도로 아카이브 도큐멘테이션 수립과정을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5.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수집방안

### 5.1 전략수집 방안

전략수집은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 특정한 주제 및 사건과 관련하여 수집이 필요할 경우 전략을 세워 수집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전략수집은 수집연표 관련 자료수집, 장소정보 수집, 개인이야기 수집

의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을 고려하여 수집연표 관련 자료수집, 장소정보 수집은 산복도로 지역을 아카이빙하기 위한 수집방법이고, 개인이야기 수집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아카이빙 하기 위한 방법이다. 각 수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5.1.1 수집연표 관련 자료수집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수집연표 관련 자료수집(이하 연표수집)은 도큐멘테이션 기록화 항목의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시기 순으로 연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산복도로의 변화 및 발전과정과 관련한 주요 사건/장소를 정리하여 산복도로만의 연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자료 또는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수집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연표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수집연표를 작성해야 한다. 시기 순으로 산복도로와 관련한 수집주제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 및 이야기 수집이 가능한 수집대상을 작성한다. 산복도로 아카이브 연표의 수집주제와 수집대상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수립한 기록화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표 2〉 참조).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수집연표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시간축을 기준으로 수집주제에 따라 산복도로와 관련한 사건/장소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 대상을 구분하여 축적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산복도로의 역사와 특성을 나타내는 산복도로만의 연표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수집연표는 수집활동을 위한 가장 기초자료로 지속적인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수집연표 작성이 완료되면 연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주로 수집대상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표 항목과 관련한 이야기 및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문헌조사, 관련기관 방문 등을 진행하며 연표 항목

과 관련한 장소는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을 촬영한다. 수집 후에는 수집연표에 간략한 수집결과를 정리한다.

〈그림 4〉는 초량·영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작성한 수집연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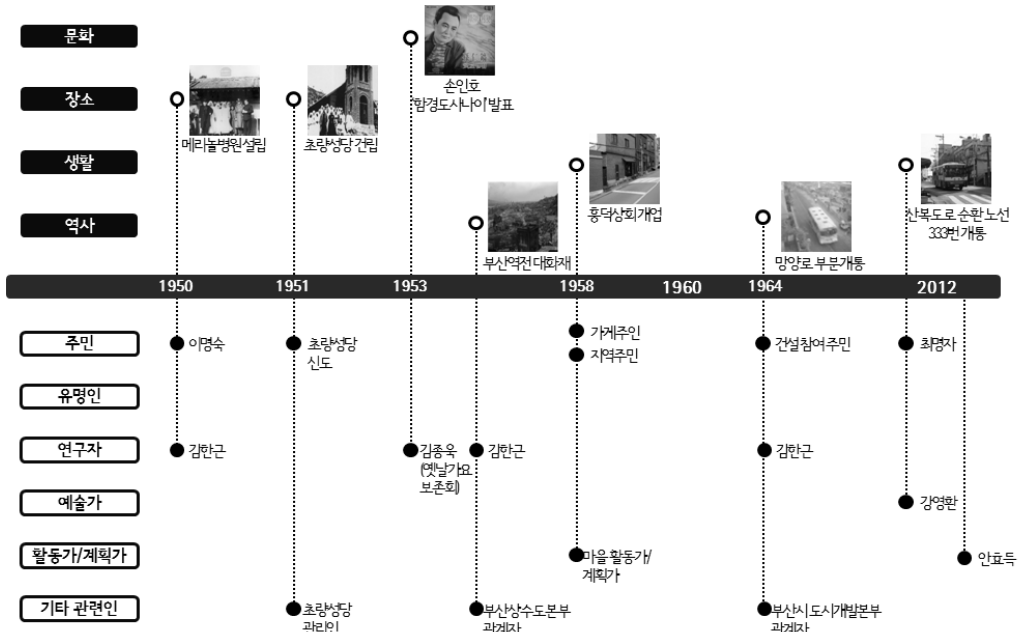
시기 순으로 수집주제를 구분하여 산복도로와 관련한 사건/장소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 및 이야기 수집이 가능한 수집대상과 구체적인 사람/기관을 명시하였다. 수집대상은 기록화 항목 인물에 해당하는 소주제(주민, 유명인, 연구자, 예술가, 활동가/계획가, 기타 관련인)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그 외 기관방문 및 기관 소장 자료조사, 현장답사, 문헌조사를 진행한 경우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수집대상에 따라 수집방법 및 수집대상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 후에는 수집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연표수집을 통해 실제 수집한 자료는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실제 수집연표를 기준으로 시범수집을 진행한 결과 산복도로 주민들의 정착기, 1970년대 이후 변화모습, 수도공급이 부족했던 시기 공동 우물 에 대한 추억, 산복도로 골목길과 계단길에 대

〈표 2〉 산복도로 아카이브 수집연표 구성


구분	항목	대상
수집주제	문화	영화/영상, 축제·행사, 음악, 문학, 미술, 모임, 종교, 블로그
	장소	집, 풍경, 길, 이색공간, 기관
	생활	식생활, 교육, 교통, 가게, 시장
	역사	형성, 변화, 사건
수집대상	주민	이주주민, 거주주민, 가게주민, 최고령자
	유명인	산복도로 출신 유명인, 화제의 인물 등
	연구자	향토사학자, 문헌 연구자 등
	예술가	음악인, 시인, 사진작가, 미술가 등
	활동가/계획가	지구별 마을 활동가 및 계획가
	기타 관련인	블로거, 버스기사, 봉사도우미 등

\* 출처: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 출처: 『산북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그림 3〉 수집연표 도식화

연표	기록사항		조사대상	수집전략		수집결과(자료 및 이야기)		
	대주제	소주제		수집대상	수집방법		수집대상자료	
1976년 6월 30일	역사	변화	동영로(메리놀병원~영주2동 간) 확장공사 준공	문헌조사	-	문헌조사	1976년 4월 26일에서 동년 6월 30일까지 추진되었으며 연장 199m, 폭 12m, 6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부산시사 3권, 1991, 316쪽)	
1976년 8월	장소	집	영주1~5공구 시민아파트 중 25동 건설	주민	시민아파트 거주민 또는 인근주민	인터뷰	시민아파트 건설에 따른 영향 및 생활의 변화	 2012년 2월 24일 촬영
				기관	부산광역시 기록관, 국가기록원	자료수집	영주시민아파트 건설 관련 자료, 도면, 사진 등	
1976년 12월 31일	역사	사건	도시재개발법 제정 (법률 제2968호)	문헌조사	-	문헌조사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재개발구역지정 기준 신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정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생활	가게	이준영씨 연탄가게 개점	주민	이준영	인터뷰	예전과 비교하여 가장 달라진 산북도로의 모습, 연탄배달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등	 동구 조창1동 조창시장 인근에 36년째 연탄가게 운영. 2012년 현재 산북도로의 유일한 연탄가게임 2012년 2월 24일 촬영
				현장답사	-	사진촬영	연탄가게 촬영	

\* 출처: 『산북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그림 4〉 산북도로 아카이브 수집연표 작성사례

한 이야기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지역 아카이빙에서 고려할 부분이 '오늘'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설문원 2011, 212). 연표수집은 과거를 대상으로만 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연표 업데이트를 통해 산복도로 현재의 모습을 아카이빙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산복도로 지역의 아카이빙을 위해 반드시 생산해야 하는 기록, 반드시 남겨야 하는 기록을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5.1.2 장소정보 수집

장소정보 수집은 마을 아카이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공간적 모습을 아카이빙 하기 위한 수집방안이다. 공간 아카이빙의 대상으로는 첫째, 역사·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 둘째,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적절히 기록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공간, 셋째, 도시 개발로 인해 미시적 공간 변화가 이루어져 공간의 변화이력을 기록화 할 수 있는 공간, 넷째, 가까운 미래에 공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기록구축시 기록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큰 공간 등(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75)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는 이 중 첫 번째 기준인 역사·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 장소정보 수집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산복도로의 모든 장소를 다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구체적인 장소정보 수집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소정보 수집대상을 도큐멘테이션 항목 중 '장소'의 소주제인 집, 풍경, 길, 이색공간, 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세부 대상을 조사하여 장소정보를 수집하였다. 집, 길, 이색공간, 기관의 경우 해당 대상을 촬영하면 되나, 풍경의 경우 '산복도로 10대 경

관', '산복도로 사진작가가 추천하는 장소' 등 산복도로를 잘 알려낼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장소정보 수집은 말 그대로 해당하는 장소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하였고 장소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은 연표수집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장소정보 수집결과 정리를 위해 <표 3>과 같이 더블린 코어(Dublin Core) 메타데이터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고, 그 외 필요한 정보(지역, 촬영위치 GPS, 대상의 위치 GPS)을 추가하였다. 장소정보 관리를 위한 항목은 향후 시스템 구축시 등록 메타데이터를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장소정보는 <그림 5>와 같이 엑셀로 정리 중이며, 촬영한 파일은 엑셀 관리번호와 동일한 파일명을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장소정보 수집은 연표수집의 한계를 보완하여 연표로 작성하기 어려운 대상을 수집할 수 있으며, 산복도로의 중요 장소를 시각적으로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장소정보 수집은 수집대상의 외형, 경관 등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외형의 변화, 계절의 변화, 특정일 등 중요 시점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5.1.3 개인이야기 수집

개인이야기 수집은 주민들이 산복도로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표수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야기 수집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연표에 대한 내용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정작 산복도로에 살고

〈표 3〉 더블린 코어를 적용한 장소정보 메타데이터 추출표

항목	요소 설명	적용여부	장소정보 메타데이터명
표제(Title)	자원에 부여한 명칭	○	대상명
생산자(Creator)	자원의 내용을 작성하는데 주된 책임을 진 개체	○	촬영자
주제(Subject)	자원의 내용이 지닌 주제	○	유형
요약정보(Description)	자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	○	내용(이야기)
발행처(Publisher)	해당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진 개체		
기여자(Contributor)	자원의 내용에 기여한 개체		
날짜(Date)	해당 자원의 일생에서 발생한 이벤트 날짜	○	촬영날짜
자료유형(Type)	해당 자원의 내용에 관한 성격이나 장르	○	자료유형
파일유형(Format)	자원의 물리적, 디지털 구현형	○	파일형식
식별자(Identifier)	특정한 상황에서 자원에 대한 분명한 참조	○	관리번호
정보원(Source)	현재의 자원이 유래한 자원에 대한 참조		
언어(Language)	자원의 지적 내용의 언어		
관련자원(Relation)	관련된 자원에 대한 참조	○	관련자료
내용범위(Coverage)	자원의 내용 범위		
이용조건(Rights)	자원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정보	○	이용조건

\* 출처: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관리번호	지역	대상명	유형	촬영날짜	내용(이야기)	자료유형	파일형식	촬영위치	대상의 위치	촬영사진
SB.LS.I1	조항동	조항동 일대 전경	풍경	12.04.02	2012년 4월 망양로 급수사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촬영한 조항동 일대 모습	사진	JPEG	부산광역시 동구 조항동 망양로 급수사 버스정류장 부근 (N 35°07'11", E 129°01' 51", 90m)	부산광역시 동구 조항동 일대	
SB.LS.I2	조항동	구룡로 51번길	길	12.03.22	구룡로 51번길은 조항전이 복개되어 큰 길이 생기기 전까지 부산역 쪽으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였음	동영상	WMV			
SB.LS.I3	조항동	구룡당 뒷편 우물	이색공간	12.04.27	1990년대 즈음까지 상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물에와 직접 물을 길어감	사진	JPEG		부산광역시 동구 조항로75-6 뒷편	
SB.LS.I4	조항동	희망사시계점	기관	12.03.25	1966년에 개점하여 산복도로 내에 가장 오래된 시계점.	사진	JPEG	부산광역시 동구 조항동 (N 35°07'13", E 129°02' 04", 47m)	부산광역시 동구 조항로 62-2 (N 35°07'16", E 129°02' 12", 47m)	
SB.LS.I5	조항동	경복이용원	기관		1980년 개점하여 2012년 1월 폐업함. 현재는 사시집이 들어서 있음	사진	JPEG	데이터 로드뷰 캡처	부산광역시 동구 조항로 46 (N 35°07'11", E 129°01' 55", 70m)	
SB.LS.I6	조항동	급수슈퍼 (팔메레스 토랑)	기관	12.04.11	1982년 구멍가게로 문을 연 이래 2011년부터 팔메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며 동네 사랑방역할을 하고있는 슈퍼.	사진	JPEG	부산광역시 동구 조항동 (N 35°07'10", E 129°01'48", 94m)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533 (N 35°07'10", E 129°01'48", 96m)	

\* 출처: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그림 5〉 산복도로 아카이브 장소정보 수집결과 작성 사례

있는 주민들의 산복도로에서의 삶과 생활, 추억 등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수집은 어렵다. 따라서 주민들이 살아온 개인이야기 수집을 통해 출생, 학창시절, 산복도로 이주(정착), 생활의 변화, 기억에 남는 장소, 산복도로에 대한 기억 등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와 관련된 자료(결혼식 사진, 자녀들 사진, 골목길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도 함께 수집하고자 하였다.

개인이야기 수집방법은 연표수집과 같이 수집대상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수집대상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수집하는가'에서 차이점이 있다. 개인 이야기 수집의 경우 수집연표 항목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산복도로 정착기, 산복도로에서의 삶, 산복도로의 추억, 산복도로에서만 볼 수 있는 생활의 모습 등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이를 위해 인터뷰 질문지 작성이 필요하다. 개인이야기 수집은 질문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질문과 고유질문을 구분하여 대상에 따라 고유질문만 수정해서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다.

〈표 4〉와 같이 개인사, 산복도로에서의 활동, 산복도로에서 살아온 생활, 산복도로 주요 사건

〈표 4〉 산복도로 아카이브 개인 이야기 수집 인터뷰 질문지 사례

항목	인터뷰 질문
개인사 질문 (공통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과 나이?</li> <li>- 출신지와 성장기 당시 거주지?</li> <li>- 이주하게 된 계기? (이주했다면)</li> <li>- 결혼, 자녀출산, 산복도로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나?</li> <li>-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가족, 여가시간 등)</li> </ul>
산복도로 주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 (공통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가옥의 변화(현재모습을 갖추기 이전의 가옥)</li> <li>- 수도가 들어왔던 시기와 그 이전에 수도공급(공동수도전이나 우물을 사용했다면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li> <li>- 공동수도전을 사용했을 때 수도전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li> <li>- 초량천이 복개되기 전과 후의 모습은 어떠했나?</li> <li>- 과거 여러 차례 썰마, 글래디스, 매미 등과 같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초량동 일대에서 겪었던 피해 중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재해 이후의 변화점이라면?</li> <li>- 망양로의 과거모습</li> <li>- 난방문제(과거 연탄을 때던 시절)의 기억</li> </ul>
산복도로 관련 질문 (공통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복도로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li> <li>- 산복도로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li> <li>- 산복도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li> <li>- 산복도로가 부산에 다른 지역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li> <li>- 나에게 산복도로는?</li> </ul>
직업 및 활동 (고유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량동 일대에서 주택을 지어주는 일은 언제부터 하였고 계기는 무엇인가?</li> <li>- 주택을 지어주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li> <li>- 1980년대에 초량동에서 주택을 새로 개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선생님께서 마을의 가옥 건축을 전담했다고 들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나?</li> <li>- 마을길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다. 건설했던 마을길에 대해 소개해 달라.</li> <li>- 현재도 건축활동을 하시는지?</li> <li>- 동구청 및 시청 등에 지역을 위해 민원 등 여러 활동을 했다고 들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li> <li>- 그 외 참여하셨던 사회활동은?</li> </ul>

\* 출처: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에 대한 이야기, 산복도로에 대한 느낌은 ‘공통 질문’으로 하고, 개인마다 다른 직업 및 산복도 로에서의 활동은 ‘고유질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인이야기 수집결과는 개인의 중요 시점을 중심으로 내용과 수집자료를 정리한다. <그림 6>은 개인이야기 수집결과를 한눈에

시점	사실	질문내용	인터뷰 답변	관련사진
1958년	부산 초량동 45번지로 이주	초량동 45번지 이주 계기와 삶	아버지께서 3부두에서 일하면서 초량동 45번지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고 하고방 형태의 집이었다. 1961년 경에 강제철거로 인해 연산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주할때 땅도받고, 보상금 등을 받고 이주했기 때문에 별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연산동은 당시 허허벌판이었고 공장에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하기에 이주를 포기했다. 보상금으로 옛 교통부 부근(벌말동)에 집을 구했지만 아버지께서 사과장사를 한다고 집을 팔아버렸다가 비가 많이 와서 장사도 못하고 보상금을 날려먹었다	
1962년	개금동으로 이주	개금동 이주 당시의 삶	연산동으로 이주하려다 포기하고 샀던 집을 날려먹은 이후에 개금의 4호 연립주택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집 겹대기만 지어주고 내부는 직접 수리해서 살아야 했는데, 여름철에 이주하면 (수리물)안한다고 추운 겨울철에 이주를 시켰다. 그때가 12월이었는데, 내부수리하는데 당시에 30만원이 넘게 들어갔었다. 개금에서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큰 길까지 걸어 가서 버스를 타고 공장을 다녔었다. 돈을 좀 벌긴 했지만 술집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돈은 별로 없었다. 초량동에 작은 방을 얻게 되어 곧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1970년	군에 입대	군대에서 복무한 동안의 삶	포천의 공수부대(13공수여단으로 추정됨)에서 3년동안 근무했는데, 군에서도 이발기술을 활용하여 이발병으로 근무했었다. 또한 1972년에는 여의도에서 대통령행사때 불러가서 행사에 참가한적도 있다	군복무시절 이발병으로 근무하면서1, 2, 3, 5
1973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	결혼하게 된 계기	제대 후에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형이 같은 마을 사람을 소개시켜줬었다. 아내는 한동네에 살았었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돈도 없었다.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별 불만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자형이 돈 몇만원쯤 제공했었고 금반지 하나 해주고 날을 잡아서 동네에서 구식으로 결혼을 했다	1970년대 후반 이흥원 앞에서
1978년	조랑 윗동네로 이사	결혼이후 경북이용원을 차리게 된 전의 삶	결혼이후에도 남의 집에서 종업원으로 몇차례 근무하다가 1978년쯤에 세를 얻어서 조랑 윗동네에서 이발소를 하였는데, 이때 3년 정도 머물면서 흥반장을 하기도 했었다.	
1980년	경북이용원을 차리게 됨	경북이용원을 하게 된 계기	1980년에 본래 경북이용원을 하던 사람이 이발소를 그만둔다고 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고, 잘 되었다 싶어서 그대로 용만 와서 그 다음날 바로 이발을 하게 되었다. 개업식도 없었고 세를 얻었는데 당시에 200만원 전세에 달세가 4만 5천원 정도였다.	경북이용원 내부 1, 2
		경북이용원의 일상	당시에 영업시간은 문닫는 시간만 정해져 있었고(저녁 7시) 문여는 시간은 자유였다. 경북이용원은 항상 새벽녘에 문을 열고했는데, 당시에는 집에서 면도를 하지 않고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했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노가다'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서서 이발소 문을 열곤 했다. 이발소 문을 닫기 얼마 전에는 집에 있다가 연락이 오면 가서 이발을 해주곤 했다	경북이용원 면도장면
1980년대	경북이용원의 전성기	경북이용원이 잘나가던 시절의 이야기	경북이용원이 잘나가던 때에는 하루 수입이 최고 7만원, 적어도 3만원은 했었다. 이때는 남학생 뿐 아니라 여학생들도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았었고 미용실은 피파할때나 가는 곳이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머리를 깎으러 많이 왔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하지만 번두리다 보니 별도로 직원을 두지는 않았고 내가 머리를 깎고 마누라가 면도나 머리를 감겨주곤 했었다.	1988년 10월 경북이용원
1990년대 이후	경북이용원의 쇠퇴 배경	경북이용원의 쇠퇴 배경	이흥사 대부분이 나이든 어른신이다보니 어린 남학생이나 사람들이 점점 미용실로 옮겨가게 되었다. 서비소교육이나 컷트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여러 여건상 이를 막는 것은 쉽지 않았다	폐업 전 경북이용원
		그럼에도 가게가 계속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용원을 한번 찾는 사람은 같은 이용원을 찾게 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 머리를 깎으면 뭔가 어색함이 느껴지고 그러다보니 우리 이용원을 찾는 사람은 계속 우리 이용원만 찾게 되었다. 특히 손으로 깎기를 잡고 잘라서 만들어나는 머리스타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기였고, 그 때문에 단골이 계속 있었던 것 같다.	
2012년 1월	경북이용원을 그만둔다	경북이용원을 그만둔 계기와 이후의 삶	경북이용원을 그만두기 전에도 하루에 2~3명씩은 꾸준히 이용원을 찾곤 했었다. 그러나 집주인이 가게를 팔기로 했고, 나도 몸이 아파 더 이상 가게를 하기 어려워져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은 사시집이 들어섰고 절거하면서 상점이나 면허증 등을 다 떼어서 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발소는 그만했지만 가끔씩 주변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발을 요청하면 직접 가서 머리를 깎아주기도 한다.	경북이용원 폐업이후 새로 들어선 사시집

\* 출처: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그림 6> 개인 이야기 수집결과 정리 사례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며 실제 수집 자료는 개인별로 인터뷰 내용, 녹취문, 수집자료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야기 수집을 통해 산복도로에 정착하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삶, 이야기, 추억이 모이게 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담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전략수집 방안을 소개하였다. 각 전략수집 방안은 산복도로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자료, 산복도로 사람들의 이야기, 장소정보로 연계되어 산복도로의 삶과 생활을 더욱 생생하게 기록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는 본격적인 전략 수집 활동을 통해 연표관련 자료, 장소정보, 개인이야기를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검색 서비스와 함께 주제별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외부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 5.2 일반수집 방안

일반수집은 산복도로 아카이브 건립 후 가능한 수집방안이다. 특정한 대상을 선택해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에 찾아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아카이브 내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찾아온 주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적인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이야기를 수집한다. 주민들이 아카이브에 찾아오고 이야기 수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한다.

일반수집 프로그램은 크게 아카이브 운영 프로그램과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아카이브에 찾아와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르신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오래된 사진 무료로 복원해주기'와 같이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와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월 1~2회 '이야기 수집의 날'을 정하여 아카이브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특정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야기 수집의 날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마을 다과회를 진행하거나, 분기별로 베틀시장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마당

〈표 5〉 일반수집 활동을 위한 아카이브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집대상
아카이브 운영 프로그램	어르신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사진촬영일마다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영정사진을 찍는 어르신들에게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 수집
	오래된 사진 무료로 복원해주기	복원을 원하는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 수집. 복원 사진 중 아카이브 수집대상에 부합하는 사진은 기증 유도
	이야기 수집의 날	아카이브에서 특정한 날을 정하여 하나의 주제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 수집
	사진촬영 교육	학생, 주부, 어르신 등 대상별로 사진촬영 교육 진행. 교육 후 직접 산복도로의 경관을 촬영하고 촬영 자료 및 경관과 관련한 이야기 수집

〈표 6〉 일반수집 활동을 위한 이벤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집대상
이벤트 프로그램	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전시회
	소중한 물건과 관련한 이야기 수집, 전시회에 참여한 물건은 촬영하여 디지털 자료 수집
	산복도로 배경 사진 콘테스트
	일반 주민, 동호회, 학생 등 대상별로 산복도로와 관련한 사진 콘테스트 개최, 촬영 사진에 대한 수집, 촬영 대상(배경)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 수집
	주제별 이벤트 수집
	'산복도로 새식구(탄생, 돌사진 등), 산복도로의 새로운 삶(결혼), 산복도로에 노닐다(기억에 남는 장소)' 등 주제별 관련 자료 수집

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그 외에 학생, 주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교육'을 하고 기억에 남는 장소, 산복도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모습 등 주제별로 직접 주민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촬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남기고 싶어 하는 산복도로 구석구석의 모습, 대표하는 경관 등을 주민들의 시각으로 아카이빙 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 운영 프로그램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아카이브에 마을주민들이 북적거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벤트 프로그램의 경우 아카이브에서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자료 수집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 참여자들이 소장한 자료를 기증받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일반적인 이벤트와는 달리, 마을 아카이브는 참여자들만을 위한 '산복도로 지킴이'와 같이 특별한 감사패를 제작하여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정기적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어 마을주민 및 아카이브를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이러한 일반수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야기 수집공간, 커뮤니티 공간, 기획전시 공간 등을 공간계획에 반영하였다. 오브제 전시공간을 최소화하고 주로 주민들이 아카이브에 찾아와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구성을 하였다.

초기의 일반수집은 수집전문가 또는 마을활동가가 진행하게 되지만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점차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어르신 영정사진 찍어드리거나 사진촬영 교육의 경우 마을의 사진동호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면, 마을의 사진관과 연계하여 오래된 사진 복원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벤트 프로그램 또한 주민들 스스로 산복도로를 기억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모으고 전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6. 맺음말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산복도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한 소통공간으로서의 아카이브”를 위한 미션과 목표를 수립하고, 현실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설립단계와 안정화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아카이브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수집활동을 위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수집활동의 방법을 구분하여 전략수집과 일반수집으로 수집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략수집은 산복도로 지역을 아카이빙 하기 위한 수집연표 관련 자료 수집과 장소정보 수집과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아카이빙 하기 위한 개인이야기 수집의 3가지 방법으로 수립하였다. 일반수집은 산복도로 아카이브 건립 후 아카이브에서 기획한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산복도로의 자료를 수집하고 아카이빙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본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으나 ‘아카이빙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주민 또는 지역 단체에서 자신들과 관련한 자료 및 이야기의 아카이빙을 원할 경우, 산복도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아카이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는 신청한 대상을 평가하여 아카이빙 대상을 선정하고 적절한 수집방안을 택하여 아카이빙 하는 방법이다. 이는 아카이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대상에 대한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내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아카이빙한 대상은 ‘아카이빙 인증 시스템’을 아카이빙된 장소에 인증 문패와 함께 QR코드를 부착하여 QR코드를 스캔하면 산복도로 디지털 아카

이브에 축적된 아카이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역의 오프라인 대상과 온라인 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산복도로에서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전략을 살펴보았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국내에서 실제로 기록학적 아카이빙 방법론을 적용하고,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기록학 전문가가 투입하여 마을 아카이브 건립하고자 한 첫 사례이다. 본 연구가 앞으로 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수진, 박소현(2010)은 마을 아카이브는 역사성, 접근성, 공유성의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역사성은 마을 아카이브가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인 및 공동체의 역사적 기록을 다룬다는 점이고, 접근성은 마을 아카이브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마을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접근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성은 마을 아카이브 활용적인 측면으로 수집된 자료를 역사적, 문화적 교육에 연계하거나 실질적인 마을 공동체 계획에 활용하고 외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을 잘 해내리라 기대한다. 필자도 산복도로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연구진으로서 앞으로 산복도로 아카이브가 국내 마을 아카이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향후 아카이브 건립 후 운영과정에서의 이슈사항과 문제점을 재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참 고 문 헌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10: 3-26.
- 국토연구원. 2011.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 더디가도 제대로 가는 길』.
-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김익한. 2010.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26: 151-172.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 부산발전연구원. 2010. 『산복도로 르네상스 기본구상』.
- 부산시. 미발표.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 엄수진, 박소현. 2010.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본 마을 단위 문화유산 기록화 연구-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시범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경래. 2012. 국내 마을 아카이브 운동의 현 단계. 『로컬리티와 로컬리티 기록화: 이론과 현장의 만남, 부산대학교 SSK 로컬리티의 기록화 연구팀·명지대학교 인간과 기록화 연구단 공동세미나 자료집』, 49-59.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4.
- 최윤진. 2011. 성미산마을 아카이빙 체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